

광양 30억 '음악분수대' 추진 논란

광양시가 30억여 원을 들여 음악분수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투입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사업비 30억4천여 만원을 투입해 광양읍 서천변에 물높이 70m, 폭 4m 규모의 음악분수대를 오는 4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음악분수대 설치를 추진,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오다 지난해말 의회 동의를 최종 얻어 사업추진중에 있다.

시는 당초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균형개발과 광양읍 서천변 상권활성화 및 관광자원 확충 등의 차원에서 음악분수대 설치를 추진했다.

시, 서천변에 물높이 70m 폭 4m 규모로 내달 착공

주민들 "시급한 현안 많은데... 전시행정 표본" 우려

그러나 주민상가 일부에서는 음악분수대 가동시 소음피해와 물날림 현상으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습도 상승으로 인한 무더위가 우려된다며 설치를 반대해 왔다.

또한 이처럼 큰 사업은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책토론을 거쳐 추진해야 하지만 일부 시의원 주장에 따라 이뤄진 사업은 당초부터 지양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일부 시의원은 "사회복지 부분, 친환경 농업분야, 노후 보건 진료소 신

축 등의 예산 확보에는 소홀히 하면서 음악분수대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며 위험한 발상의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는 등 시 의회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업이었다.

광양시가 이 사업을 계획하던 2008년 초기 예산은 24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29억여 원, 올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시점에는 30억4천여 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대형 태풍이

나 홍수시 하천의 유속 흐름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설계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중마동)씨는 "음악분수대 설치하는 전형적인 지역안배 차원의 발상에서 나온 전시행정의 표본이다"면서 "더 시급한 현안들도 많은데 굳이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려는 건 납득하기 곤란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음악분수대 설치 기술의 발달로 고사분수대의 물높이를 풍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필요시에만 분수를 잠시 켜놓기 때문에 소음역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박영진기자

광양제철-지역 중소기업 '가까이 더 가까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 김준식)가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5년부터 자체 교육환경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 직원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인 '전장크레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설립되는 포스코의 광양지역 사회적기업 '포스 플레이트' 채용자 29명이 지난 2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광양제철소 혁신지원센터에서 기본 소양 및 전공실무 등을 교육받고 있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동안 창의적 사고와 안전관리, 사회공헌 등 69시간의 기본소양 프로그램과 천장 크레인 운전 실습 등 408시간의 전공실무에 이르기까지 총 477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제철소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총괄하고 있는 김혜원(44·경



포스코의 광양지역 사회적기업 '포스 플레이트' 취업예정자들이 광양제철소 혁신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인 '전장크레인 양성교육'을 받고 있다. <광양제철 제공>

취업 예정자 대상 5년제 직업훈련교육 작년까지 546명 배출... '상생 경영' 호평

생교육그룹)씨는 "교육생들에게 실무능력향상 교육뿐 아니라 진로지도와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내에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멘토링' 제도를 운영, 채용된 회사에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가 실시하는 '전장크레인 양성교육'은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해소는 물론 상생경영의 좋은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46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수기자 choug47@

'광양밤 주식회사' 설립된다

농업인 21명 '추진위' 출범

전남 최대의 밤 생산지인 광양시가 '광양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본격 사업에 팔을 걷고 나섰다.

광양시는 16일 광양읍사무소에서 광양밤 농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 특산농산물인 밤 농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광양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운영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광양밤 농업인 21명이 참가해 광양밤 주식회사 설립추진위를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광양에서는 과수원 개념이 아닌 야산 등지에 산재한 상태의 밤 나무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생육·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성과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소득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운영결과를 토대로 회사가 설립되면 밤의 수집, 유통·관매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상품개발, 과학적 재배법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밤농가와 협의를 통해 농가당 평균 100만원 정도씩 출자토록 해 회사 설립을 앞당기고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혁신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양운 시 산림자원과 담당은 "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27억원의 출자금 마련을 모색중에 있다"면서 "시는 정부 정책에 맞춰 농업기업 만물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구례 '산수유꽃 디카사진 콘테스트'

내달 4일까지 작품 접수

구례산동우회(회장 마현영)는 18일부터 21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열리는 '구례 산수유꽃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제 1회 산수유꽃 디

카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작품응모는 다음달 4일까지 산수유 꽃축제 홈페이지 게시판 '디카사진 콘테스트 참여하기'란에 등록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품 규격은 JPG파일로 2MB이상 총 10MB 까지 가능하고,

합성사진은 접수할 수 없다. 1인당 4점 이내로 출품할 수 있다. 수상자 발표는 다음달 말에 산수유 꽃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수상작품은 구례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금상 1점(상장 및 상품 200만원), 은상 2점(동상 4점, 가자 10점, 입선 30점 등 총 47점의 우수작을 시상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매실 점목 손길 분주' 16일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들녘에서 주민들이 매실 묘목에 상품성이 좋은 매실 품종을 점목하고 있다. 매실묘목은 오는 10월께 묘목시장으로 출하된다. /곡성=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여수박람회 'Big-O' 사업 본격화

1250억 투입...터키입찰 공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핵심사업인 'Big-O'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는 지난 15일 'Big-O' 사업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터키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선정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오는 6월에 'Big-O' 프로젝트를 맡게 될 사업자를 선정, 7월께 착공해 2011년 말 완공하고 시운전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박람회 개막에

맞춰 일련에 공개할 방침이다.

'Big-O'는 여수신항 일대 앞바다에 1천2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바다 전시장으로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구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Big-O' 사업은 해상에 위치한 주제관과 육지부를 연결하는 바닷길, 관람객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해양 체험공원, 각종 공연, 문화예술행사 등을 위한 해상무대, 여수 세계박람회의 밤을 멋지게 밝혀줄 뉴미디어 쇼를 위한 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금오도 '임금님 봉산 생태코스' 개발

여수시 6억 들여 9월까지

여수시 금오도 매봉산에 '봉산' (封山)을 주제로 한 생태탐방코스가 개설된다.

봉산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민간인의 입주를 금지하고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던 산을 이른다.

여수시는 국비 3억원 등 사업비 6억원을 들여 탐구미에서 해안선을 따라 직폭까지 9km 구간중 연결돼 있지 않은 500m의 탐방로

를 오는 9월에 개설한다. 조망이 우수한 곳에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생태탐방로가 개설되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매봉산 등산코스와 더불어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아오는 건강의 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생태탐방로가 개설되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4기) **3월 19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중의침구학/장상론/특수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 (해외사용가능)

요녕중의약대학 석박사학위과정

- 자격: 대학이상, 전문과정 수료생 · 수업기간: 3년
- 입학: 매년 3월, 9월 · 주요전공: 중의기초이론/침구추나학/중의포상학/중서의결합임상/중약학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1544-5359**
 광주분원: **(062)236-3516**

광주, 전남 최고!
성인 커뮤니티의 역사

1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국가는 물론 해외 교포들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입니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입니다.
 지리장정 확인하세요

100% 직접 통화
 24시간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1588-3533

*여성은 문의시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하트폰

공장매매

- 위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지: 6,345㎡ (1,920평)
- 건물: 1,685㎡ (510평)
- 전기: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011-612-2823**
 이메일: dii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4,000평
- 건물: 650평
- 전: 9,500평
- 합계: 13,500평
- 매가: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